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하나님 나라와 가정공동체 - '94전교인 가족수련회 강원도 삼척에서 -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25일(월)부터 28일(목)까지 3박 4일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삼척산업대학교에서 전가족 수련회를 갖는다.

▶ 주제와 목표

「하나님 나라와 가정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허물 어져가는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준비위원회의 진행사항

준비위원회(위원장: 유윤진 장로)에서는 이미 버스 20대를 예약하였으며 지난 8일(금)에는 현지 답사를 통해 동해안 해수욕장 허가를 얻는 등 수련회를 위한 제반의 일들을 하나씩 진행해 가고 있다.

▶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아침이슬과 같이 고요한 중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새벽기도회는 이종윤 목사가 산상보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에 대해 선포할 것이다.

▶ 선택 특강과 성경학교 - 가정에 관한 영화관람도

오전 시간 장년부는 특강은 선택하여 들으며 각 교회학교별로는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장년부 특강은 소그룹에서 심도있게 토의하도록 하기 위해 4개의 과목을 개설하고 3일동안 동일하게 강의 함으로써 자신과 가정에 관심있는 강의를 선택하여 들도록 구성하였다. 특강의 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문제와 가정교육 - 김용진 박사
- ② 결혼과 부부문제 - 심상권 박사
- ③ 산업사회와 성문제 - 송길원 박사
- ④ 기독교 가정과 교회생활 - 김향숙 선생

장년부의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는 교회학교 학생들은 가정에 관한 영화를 관람하게 되며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은 장년들이 가족관계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 해변에서

오후 시간에는 전가족이 바다로 나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며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름을 즐기는 시간을 갖는다.

▶ 저녁 집회와 강사

저녁 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사회를 진단해 보고 건강한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확신해 가기 위한 적용점을 모색할 것이다.

강사로 오시는 송길원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동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연구한 후 미국 Reformed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필가로도 잘 알려진 송목사는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와 같은 가정 사역에 관련된 책들을 펴낸 바 있으며

고신대 의대에서 교목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기독교 가정사역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 신청서 접수

준비위원회는 참가할 가족들의 신청서를 접수하기 시작하였다. 주일에는 예배당 입구에서 접수하며 평일의 문의 및 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25일●월	26일●화	27일●수	28일●목
06:0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설교: 이종윤 목사)		
07:00	잠실 출발	체조, 주변청소·정리		
		세면		
08:00		아침식사		
09:00	휴게소별 노방전도	특강(장년부) 및		폐회예배 사진촬영 정리
10:00		교회학교별 모임		
11:00		(유·초·중·고·대·청부)		
12:00		점심식사		
13:00		해변에서		삼척 출발
14:00	도착예배	- 우리는 한가족 -		
15:00	숙소배정, 정리			
16:00		귀영		
17:00	휴식			
18:00	저녁식사			서울 도착
19:00	찬양의시간			
20:00	부흥회(설교: 송길원 목사)			
21:00				
22:00	다락방 모임		캠프파이어	
23:00				
24:00	방별모임			

“우리 가족 만세!”를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이종운 목사

한 문화가 붕괴되기 직전에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가정붕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혼의 급증, 자녀 수의 감소, 부모벌시 증대,
간음금지규정 폐지, 자녀양육의 어려움 증가,
청소년비행의 파급, 각종 성도덕의 문란 등은
모두가 가정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부성(父性) 부재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가정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가?
아내로서, 모성(母性)으로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매 맞는 아내, 성폭력으로 고민하는 가족을
누가 치유할 수 있을까?

서울교회는

'94 여름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통해
속사람의 치유로부터

변화된 겉사람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천국시민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설교, 세미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맑고 깨끗한 동해의 바다 향취도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과

부모와 자녀간에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봉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이 형성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교회 성도마다

'94 가족수련회에 다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족 만세!”를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앙원합니다.

▶가족수련회의 추억

또 가자, 고생하러?

문동진(청년부)

첫 해는 불별 더위에 잠조차 설쳤고 그 다음
해엔 때 속까지 시려오는 강원도의 여름 추위에
시달렸다. 두 번에 걸친 수련회에 극단적으로 달
랐던 날씨들은 예전에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
던 것이다. 더구나 대학부와 청년부에 속한 회
원들은 캠프파이어를 위한 준비와 각종 굿은 일
들로 폭염도, 장대비도 온 몸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풍토도 마치 여름 휴가를
위해 1년을 일하는 사람들처럼 7월 말과 8월 초
가 되면 도시가 텅 빈 듯 모두 휴가를 떠난다. 몸
과 마음과 정신의 휴식을 위해 아름다운 곳, 좋
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듯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명 남짓의 무리가 한 장소에 모여 숙식
을 같이하며 안락함이나 육체적인 쉼 따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 교회의 수련회에 참여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다. 준비위원들의 회
생적인 헌신 덕분에 많은 인원에 비하면 모든
시설과 제반 여건이 너무도 훌륭하지만 뜻이 맞
는 몇 사람, 혹은 가족 단위로 편리한 시설을 갖
춘 곳에 많은 경비를 들여 가느니만 못하지 않
느냐는 것이 솔직한 평일일 수 있다.

삼척대학캠퍼스에서 가진 두차례의 수련회는
더위와 여름 추위에 대한 인공적인 대책도 없고
식사가 기름진 것도 아니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의 여느
여행과 휴가보다 의미있었고 즐거웠다. 몸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으니 뜨거운 햇빛까지도 우리 몸의 건강을 위
해 정말 필요한 것임에 감사할 수 있었다. 부대
끼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알고 하나되었던 기쁨
은 그 후로도 오래동안 청년부를 계속시켜준 힘
이 되었고 조금 고생스럽긴 했지만 힘에 지나도
록 봉사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내게 큰 교훈과 추
억으로 남는다. 편하려고만 한다면, 그래서 불편
하다는 이유로 가기 싫다면 여름날의 값진 추억
을 가질 기회를 잃는 것이 될 것이다.

작년, 삼척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에서 노곤함
과 가슴 뭉뚱함을 동시에 느끼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편안하기 위함이 아님을 생각게 되었
다. 오히려 육신의 안일을 위해 하나님을 벗어나
려는 본성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 친
구여, 이번에도 같이 가자. 기쁨과 추억과 귀한
교훈을 안겨주는 고생을 경험하러...

◆수련회에 거는 기대

절대 사랑, 절대 순종, 절대 행복

허숙(집사, 11교구)

동갑내기 우리 부부는 올해로 결혼 10년째.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하나 두고 있다. 많
은 형제의 막내인 내가 3대 독자인 남편과 만
나서 “어휴, 정말 안맞아!”라는 말을 수없이 되
내리면서도 지금까지 비교적 순탄히(?) 살아온
것은 순전히, 정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
이다.

지금은 무슨일이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가물거리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부부싸
움이란 것을 하고 낙심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으로 이끄시어 위로하시며 남편에게 절
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후로는 남
편이 조금만 언짢은 기색을 보여도 “당신이 옳
아요”하며 부추기는데 그러면 남편도 이내 기
세를 꺾고 나에게 절대 사랑을 베풀곤 한다. 그
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 본 것은 우리 부부에
게 있어서 절대 순종이 언제나 나만의 몫이라
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아이까
지 내 인내심을 요구해 오곤 한다.

굳이 문제부도와 패륜아를 들먹이지 않더라
도 이 시대의 가정은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가
정이 지금은 평안한 것 같아도 최악이 관영하
는 세상에서 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노라면 언
제 어느 때 문제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위기
감이 든다.

때마침 수련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와 가정공동체」라고
하니 내 귀가 솔깃해
진다. 나 뿐만 아니고
가족 모두가 깊은 신
앙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대를 감당하기
가 힘들다는 생각이
다.

요즈음 비가 와도
즐거워하는 것은 우기가
수련회 기간을 피하
여 미리 오는 것이라
는 생각 때문이다.



수련회에 참여 - 기습 인터뷰

나도 한마디!

우리 가정(Home)만 아니라 우리 집(House)도 옮겨 갔으면 가족 수련회의 뜻을 더 깊게 위해서 공동숙소의 제공 뿐 아니라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은 어떠하신지요? (L성도)

가족끼리 이루어 내는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수련회 기간동안 가족간의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협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신문을 만들어 본다든지, 간단한 공작을 하여 콘테스트를 벌인다든지, 간단한 요리 경연대회를 벌인다든지... (J성도)

사랑은 설거지를 돕는것?

음! 기간 동안만이라도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식사를 타다가 대령함이 어떨지. 아내 사랑의 표시로 부엌에서의 배식과 설거지도 남편 몫으로 떼어 놓을 참인데. (O성도)

강원도령도 전국시민으로 양성되도록

수련회에 소용될 경비는 최소화합시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강원도령님들 공부 잘 하시도록 장학금으로 내 놓읍시다! (Y성도)

모닥불 피워 놓고

약년, 재작년의 캠프파이어는 대형 이벤트를 보듯 근사한 것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자그마한 모닥불에 둘러 앉아 가족끼리, 다락방 깍구끼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정겹게 이야기도 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듯 합니다. (P성도)

동해의 바닷물이 어찌 그리 시원스러우지요

내 몸도 마음도 다 녹아 내리는 기분이었지요. 빨리 25일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K성도)

◆ 보다 더 아름답게 결실하기 위한 제안

우리의 참여와 봉사의 자세를 돌아보자

장유휘(목사, 9·10교구·출판부 지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유난히도 행사가 많다. 그간 그 모든 행사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적체 적소에서 묵묵히 헌신의 땀 흘렸기에 오늘의 서울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

모든 일이 그 시작점에서는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약간의 흥분과 기대와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자의 참여도, 서로 힘을 합치는 일도 쉬운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행사를 하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전에 했었던 자료 등을 의지하고 본래 취지를 숙지하지도 않은 채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로 일을 진행하기 심상이다.

거듭되는 교회행사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실하게 참여하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태도들이 있음을 굳이 지적해 보려 함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좀 더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하리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다.

첫째, 무관심형이 있다. 교회에서의 일들이 본인의 신앙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는자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인기주도형. 진정한 참여와 봉사보다 인기관리에 관심이 있다. 체면 때문에 한 번 나와본다든지 구경꾼이 되거나 강한 비판을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형이다.

셋째, 배타적 봉사자가 있다. 열심이 특심함은 좋으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봉사의 영역을 구축하는 사람이다.

그 밖에 소위 3D라고 일컫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봉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교회에도 몰래 들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올해도 세번째 같은 장소로 전교인이 함께 가족 수련회를 떠나게 된다. 준비위원들은 작년, 재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미비했던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벌써 마음이 삼척으로 가서 들뜬 이가 있는가 하면 약간의 불편함을 우려하고 망설이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의 주제와 취지를 볼 때 결코 교회의 행사로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절실함이 있다. 갑자기 딴 세상을 사는 듯 혼란스러워진 사회에 우리가 직접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찌라도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지 않았고 애통해 할 줄 몰랐으며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못 미친 때문이라면 지금의 혼란에 우리도 일조한 것이 아니던가? 내 가족 내 자녀만 잘 키친다 고 해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라는 덕목을 훈련해야만 한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성경적 노선에 의한 사유와 행동을 용기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일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짧은 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사회의 갱신과 변혁의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여하고 봉사할 일이다.



육군 제2훈련소 진중세례식

- 4천여 명 주님을 영접하고 -

사단법인 군 복음화 후원회에서는 매월 교단별 책임하에 육군 제2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식을 베풀어 왔다. 이번 7월 16일(토)에는 군복음화후원회를 돕고 있는 이사들이 시무하는 교회들을 비롯한 후원회원들이 참여하여 세례식을 집례한다.

이번에 수세 예정자는 4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7명, 장로 10명 그리고 군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 세례식에 참여 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당일에 오전 8시까지 교회로 오면 된다.!

■ 목회자 동정 ■

- 우리 교회는 김용진 박사를 협동 전도사로 청빙하였다. 당회는 김전도사의 신앙과 신학적 지식이 우리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 협동전도사로 청빙기로 한 것이다. 김전도사는 숭실대, 아세아연합신학교, 미국 Eastern Baptist 신학교를 거쳐 John Jay College(M. A.), San Houston 대학교에서 범죄학 박사(Ph. D.)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Kutztown 대학교, 충신대, 중앙대, 숭실대, 법무부 연수원에서 강의한 바 있다. 또한 도미 전에는 할렐루야교회 전도사로 시무하였으며 현재는 사랑의 연수원(이사장: 이종윤 목사)의 원장으로 청소년 문제 연구와 선도 사역에 힘쓰고 있다.
- 서울여자대학계 이사회는 지난 7월 1일 이종윤 목사를 이사로 청빙기로 하고 이를 통보해 왔다. 이 목사는 서울여대를 위한 총회 파송 이사가 된다.
- 협동 목사 및 협동전도사 모임이 지난 7일(목)에 있었다. 이종윤 목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모임에서 전반기 목회 점검과 제6학기 목회자세미나 및 '94전교인 가족수련회 프로그램이 검토되었다.

원고를 모읍니다.

- 그리스도인답게 더위를 이기는 법 -

「순례자」 편집실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여름철에 그리스도인다운 바람직한 여름나기를 지면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는 코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논단, 수필, 제언, 포트 등 어떤 형식의 글도 환영합니다. 1편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6장 내외가 적합합니다. 원

원고 제출 및 문의는 「순례자」 편집을 지도하시는 장윤희 목사님(교회 ☎ 517 - 7655)이나 「순례자」 편집실(팩스 / 516 - 9641)로



순례자 캠페인 - 우리는 공동체 생활의 교양인!

아량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자

우리 교회는 교육관 철수로 인하여 본당의 집회실을 여러 부서가 시간차를 갖고 번갈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로서 피차 아량과 양보의 미덕과 예절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예배당 집회실은 어느 특정 부서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용부서는 사용 전에 모든 성물들이 제 위치에 바르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다음의 사용자를 위해 음향시설의 점검, 소등, 커튼 손질과 창문닫기, 청소상태 점검, 피아노의 뚜껑을 덮는 일까지 세밀히 점검하고 정리하자.

모두가 예배위원의 마음으로

모두가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예배위원의 마음을 가져 보자. 예배실의 의사 등 모든 가구와 집기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봉투를 예쁘게 꽂아 놓은 것을 유지하는 일까지 바로 내가해야 함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배실에서의 잠담은 삼가자.

절약하는 마음으로 더위를 이기자

무더위에 높은 습도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본당 전체를 사용하는 주일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어컨디션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예배시에 음향 사고가 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자.

예배시간에는 하나님과만 통화(?)를

핸드폰과 호출기. 급변하는 사회의 유능한 성원으로 적응해 나가는 데에 유용한 것이긴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하는 예배시간 만큼은 잠시 꺼두는 것이 어떨지. 아무리 긴급한 일이어도 예배를 우선할 수 없지 않은가? 우리가 배운대로 예배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기독교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2. 전교인 가족수련회를 은혜 중에 준비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헌신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